



오리온 '마이구미 자두알맹이' 선보여

오리온이 과일 속살 식감 젤리인 '마이구미 자두알맹이'를 출시했다. 겉과 속에 서로 다른 식감의 젤리를 사용해 자두 특유의 맛을 살렸다. 쫄깃한 젤리로 자두 껍질을 구현했고, 자두 과즙이 들어 있는 몽글몽글한 젤리로 속을 채웠다. 같은 붉은색으로, 속살은 노란색으로 만들어 실제 자두 모양을 섬세히 표현했다.

CJ제일제당, 'CJ웰케어'로 헬스케어 사업 박차

“구강유산균 개발부터 개인맞춤 전기식까지”

웰니스 사업 강화·2025년까지 선두 기업 목표
오라팜과 구강유산균 협업 등 기존 유산균 확대
'이너비 인텐스 콜라겐' 피부보습 기능성 인정
알팍과 연내 개인 맞춤형 전기식 출시할 예정
“미래형 제품 선배...헬스케어 전문기업 도약”

CJ제일제당이 헬스케어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월 기존 건강사업부를 독립해 신규 설립한 헬스케어 전문 자회사 CJ웰케어(Wellcare)를 통해서다.

코로나19 장기화 속 건강관리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늘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바이오헬스 산업을 5대 메가 테크 육성 산업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을 밝힌 것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CJ웰케어는 단기적으로는 차별화된 건강기능식품(이하 전기식) 출시를 통해 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타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개인 맞춤형 전기식 사업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CJ그룹의 4대 성장 엔진 중 하나인 '웰니스(치유·Wellness)' 사업을 강화하고, 2025년까지 선두권 기업으로 성장하는 게 목표다.

●BYO유산균 영역 확장

단기 목표인 차별화 전기식 출시를 위해 기존 유산균 전문 브랜드인 BYO유산균의 영역을 확장한다. 2013년 피부 기능성 개발인정 유산균을 시작으로 장 유산균까지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왔다. 향후 기능성 균주를 확보하고 있는 전문 업체와 협력해 유산균 시장에서의 지위를 강화하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3월 말 구강유산균 전문기업 오라팜과 '구강유산균 연구 및 제품 개발을 위한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구강유산균은 입속 유해균은 억제하는 반면 유익균은 증식시켜 구강 면역력에 도움을 준다. 최근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면서 제품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올 상반기 내 오라팜의 기



CJ제일제당이 1월 설립한 헬스케어 전문 자회사 CJ웰케어를 통해 헬스케어 사업 확장에 한창이다. 피부 보습 기능성을 인정받은 '콜라겐 펩타이드'를 주원료로 만든 '이너비 인텐스 콜라겐(왼쪽 사진)과 구강유산균 연구 협약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장승훈 CJ웰케어 대표(오른쪽)와 윤은섭 오라팜 대표.

능성 균주를 활용한 BYO브랜드의 구강유산균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신규 기능성 원료를 발굴하고 이를 활용한 스페셜 제품의 포트폴리오도 확대한다. 6일 선보인 '이너비 인텐스 콜라겐'이 대표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피부 보습 기능성을 인정받은 '콜라겐 펩타이드'를 주원료로 만들었다. 북대서양 청정 바다에서 잡은 프랑산 흰살 생선에서 뽑아낸 원료로, 인체적용시험을 거쳐 피부 보습과 탄력에 유의미한 개선이 있음을 확인했다. 또 독자적인 배합 기술로 비타민C, 비오틴, 판토텐산 성분을 더해 항산화 효과를 높였다.

회사 측은 “독보적 기술력으로 이너뷰티 시장을 연 이너비가 차별화된 효능의 콜라겐 제품을 내놓았다”며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는 다양한 제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했다.

●개인 맞춤형 전기식 이끈다

중장기적으로는 개인 맞춤형 전기식의 선두주자로 진화한다. 개인 맞춤형 전기식은 개인의 식·생활습관을 바탕으로 전문가 상담, 건강 설문, 유전자 분석 및 장 내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등을 통해 꼭 필요한 성분만 섭취함으로써 영양과잉 등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2022년 3월 27일 CJ제일제당과 오라팜이 '구강유산균 연구 및 제품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장승훈 CJ웰케어 대표(왼쪽)와 윤은섭 오라팜 대표(오른쪽)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미국, 일본, 호주 등 의료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돼 있지만, 국내에서는 걸음마 단계다.

이를 위해 2월 말 전기식 소분 제조와 유통 추적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알팍과 '개인맞춤형 전기식 제조 및 소분 판매를 위한 사업 협력'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연내 한 포에 담아 맞춤형으로 제조한 전기식을 출시할 예정이다. CJ웰케어의 전기식 연구·개발(R&D) 및 제조 역량과 알팍의 소분 제조 및 유통 플랫폼을 결합해 개인 맞춤형 전기식 사업 확장에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라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장승훈 CJ웰케어 대표는 “건강사업 노하우와 R&D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래형 제품을 지속 선보일 것”이라며 “소비자의 건강한 삶을 위한 ‘웰니스솔루션’을 제공하는 헬스케어 전문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했다.

한편 CJ제일제당은 10일 충북 진천 소재 생산 공장인 CJ블로썸캠퍼스에 친환경 에너지 공급시설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목재 연료(바이오매스)를 숲으로 만드는 작업을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팀 에너지가 공장 가동에 활용돼 기존 화석 연료인 LNG(천연가스)를 대체하게 된다. 내년 착공해 2025년부터 본격 가동되며, 온실가스가 연간 4만4000톤가량 줄어든 것으로 전망된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삼성, 차세대 'N-ERP' 글로벌 도입 완료 새로운 비즈니스 민첩성·생산성 강화



삼성전자는 미래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혁신 비즈니스 플랫폼인 차세대 'N-ERP(전사자원관리)' 시스템 구축(사

진) 프로젝트를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2018년 10월 N-ERP 프로젝트에 착수해 지난해 4월 동남아·서남아·중국 등을 시작으로 올해 1월1일 국내 사업장까지 순차적으로 적용했으며, 올 1분기 결산까지 안정적으로 완료했다.

삼성전자 N-ERP는 새로운 비즈니스 대응을 위한 시스템 통합과 전문 솔루션 도입,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위한 시스템 성능 향상, 인공지능을 통한 의사결정 지원과 업무 자동화 등 신기술 적용을 특징으로 한다.

문성우 삼성전자 경영혁신센터 부사장은 “N-ERP는 비즈니스 민첩성과 생산성을 강화할 수 있는 차세대 플랫폼이다”며 “삼성전자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코오롱몰, 24일까지 'OLO 봄 페스티벌'



코오롱FNC가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코오롱몰이 24일까지 'OLO 봄 페스티벌(사진)'을 진행한다. 먼저 날마다 새로운 프로모션을 선보인다. 'OLO 브랜드 딜'은 매일 대표 브랜드 하나를 선정해 사은품과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OLO데이'에는 코오롱FNC의 창립기념일인 4월12일 하루 12% 할인 쿠폰을 증정한다. 신규 가입자를 위한 혜택도 마련했다. 5만 원 이상 신규 가입 구매자에 한해 1만 원 쿠폰을 주고, 신규 고객만 구매할 수 있는 코오롱몰 피크닉 세트(매트, 보냉백)도 준비했다. 코오롱몰 앱 신규 설치자에게 5000포인트와 함께 앱 전용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건강 올레길 | 우리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임플란트와 잇몸치료 중점 진료” 서울베스트원치과의원 신규 개원



임플란트, 잇몸치료를 중점 진료하는 서울베스트원치과 의원이 강서구 화곡

역 8번 출구 근처에 3월14일 신규 개원했다.

서울베스트원치과 의원은 임플란트와 잇몸치료를 비롯해 심미보철, 신경치료, 턱관절치료 등 각종 치주질환 및 치아관리의 관련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진행하며 원내에 3D 입체 구강 스캐너, 저선량 CT방사선장비 등 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다.

정밀검진을 토대로 환자의 치아 상태에 따른 맞춤 치료를 실시하며 필요한 치료만을 진행하는 것을 진료원칙으로 하고 있다. 조재우 원장(통합치의학과 전문의·사진)은 “모든 치료는 체계적 계획에 이뤄지며 디지털 임플란트를 통해 치료과정에서 환자의 신체적 부담은 최소화하고 시술 정확도는 높였다”고 말했다.

서울베스트원치과 의원은 정기적인 원내소독, 체온체크, 손소독제 비치 등 코로나19 감염 방지 및 환자 안전을 위한 방역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환자 간 교차감염 예방을 위해 모든 진료는 1인 독립진료실에 한다. 진료실에는 공기배기장치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공기 중 오염 물질과 세균을 배출하여 교차감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제빵왕 김탁구를 찾아라”...MG커머스, 제빵제과 레시피 공모전 개최

총상금 규모 1200만원...5월 31일까지 공모
수상자에 입사특전·상품개발 토큰 판매 지원

MG커머스(이민지 대표)는 나만의 제과제빵 레시피 공모전 ‘제빵왕 김탁구를 찾아라’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제과제빵 전용 향료키트인 ‘마스터 플레이버 20’ 출시를 기념해 개인의 레시피를 발굴하고 공유

함으로써 제과제빵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기획됐다.

공모 기간은 5월31일까지이며 결선은 6월30일까지다. 참가 자격은 제과제빵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예선에서 결선 진출자 10명을 선정하고, 결선 진출자에게는 출품 재료비 30만 원을 지원한다. 대상 1명에게 상패 및 상금 500만 원, 1879 굿즈 50만 원 상당을 제공한다. 금상 1명에게는 상패 및 상금 100만 원과 1879 굿즈 50만 원 상당을, 동상 8명에게는 상패 및 1879 굿즈 20만 원 상당

을 지급한다.

총상금 규모는 1200만 원이고, 상금과 부상 외에 수상자에게는 희망 시 입사 특전과 상품개발시 판매 지원 또는 수익 공유를 통한 지속적인 수입 창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나만의 제과제빵 레시피를 제품 사진 또는 동영상 파일과 함께 MG푸드스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csfkang@csfood.com)로 제출하면 된다. 출품은 1인 3점까지 가능하며 최종 선정 과정에서는 상품화 가능성에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MG푸드스 홈페이지 또는 공모전 사이트 위버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동행복권, 취약계층 아동·청소년과 청각장애인 위한 기부금 전달

‘동행복하기’ 소비자가 히어로포인트로 기부 참여
“복권의 나눔문화 통해 복권의 순기능 다시 되새겨”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대표 조형섭, 김세중)은 ‘동행복하기’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모금된 기부금을 ‘희망을 나누는사람들’과 ‘사랑의달팽이’에 전달(사진)했다고 10일 밝혔다.

동행복하기는 동행복권이 주관하는 소비자 참여형 사회공헌활동이다. 보유한 히어로포인트(1일 1회 100P·동행복권 홈페이지 로그인 시 지급)를 통해 소비자가 직접 후원분야를 선택하고 기부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기부를

결정한 히어로포인트만큼 동행복권이 해당금액을 기부한다.

2월7일부터 3월31일까지 약 2개월간 동행복권 홈페이지를 방문한 소비자들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희망나눔 장학사업과 청각장애인 소리숲 카페지원을 후원했고 각각 1500만 원 씩 총 3000만 원이 희망을 나누는사람들과 사랑의달팽이에 전달됐다.

조형섭 동행복권 대표는 “동행복권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한 복권 구입자들은 사회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며 “복권의 나눔문화를 통해 복권의 순기능과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동행복권 사회공헌활동 브랜드인 ‘동행히어로’는 이웃과 사회를 위해 기부하고, 봉사하고, 나누는 행위를 하는 모두가 영웅(히어로)이라는 뜻으로 나눔 실천 판매인을 발굴하는 동행+ (나누기), 소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자원봉사활동 동행+ (더하기), 온라인 기부 활동인 동행x(곱하기) 3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전개되고 있다.

김도현 기자